

면직설 제기되는 젠-20 총설계사

등록 2016.10.14 11:56:21 | 수정 2016.12.30 11:55:09



【서울=뉴시스】중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(殲)-20(J-20) 총설계사가 최근 면직된 것으로 전해져 젠-20 개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. 13일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언론 뒤웨이는 젠-20 프로젝트를 주관해 온 양웨이(楊偉) 중국항공공업 청두(成都)항공기설계연구소 부소장이 면직됐고,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. 양 부소장이 중국 관영매체의 취재를 받고 있는 모습. (사진출처: 뒤웨이) 2016.10.14